

노년기 부부의 결혼생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관한 연구 -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나예원*, 김형수²

¹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노인복지학과, ²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factors that affect married life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couple Moderating Effect of Spouse Support -

Yei-Won Na¹, Hyoung- Soo Kim²

¹Ph. 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²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배우자 결혼생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 주변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40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결측치가 많은 12부를 제외한 388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성격적합성, 성역할태도, 경제상태로 나타났다. 둘째, 배우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성역할태도, 신뢰도와 경제상태로 밝혀졌다. 셋째, 배우자 결혼생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요인은 성역할태도와 경제상태로 나타났다. 넷째, 환경요인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환경요인은 성격적합성과 경제상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황혼이혼 증가로 알 수 있는 노년기 부부의 위기극복에 필요한 결혼생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통요인인 성역할태도와 경제상태와 함께 조절변인인 배우자 지지가 중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부부 대상 상담 및 교육 등 관련 정책수립에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study of elderly couples examined the main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the married lif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spouse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60-year-old elderly couples who live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and Gyeonggi. A total of 400 questionnaires were used to analyze the exception of a number of 12 388 additional missing dat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the marital satisfaction of spouses' personality suitability and gender role attitudes appeared in the economic conditions. Second, the spouses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turned out to be the gender role attitude, reliability and economic conditions. Third, the major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both spouses married lif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was found to be the gender role attitude and economic conditions. Fourth, the environmental factors representing a moderating effect on the supporting spouse between environmental factors and life satisfaction appeared to be the personality suitability and economic condi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recent increases in the twilight divorce rate may be due to the marriage satisfaction and common factors of gender role attitudes. Therefore, to improve the lives and economic conditions as well as the satisfaction of the spouse, the support of important factors are needed to adjust the crisis of old age couples. Therefore, a relevant policy that targets elderly couples through counseling and education will be needed.

Keywords : Economic conditions, Gender role attitude, Life satisfaction, Married life satisfaction, Personality suitability, Reliability, Spouse support

*Corresponding Author : Hyoung-Soo Kim(Hoseo Univ.)

Tel: +82-41-560-8121 email: kimhs@hoseo.edu

Received March 8, 2016

Revised April 6, 2016

Accepted April 7, 2016

Published April 30, 2016

1. 서론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지난 2013년 기준 48.0%를 나타냄으로써 OECD 국가 중 가장 나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1]. 우리나라 노인자살율의 경우에도 인구 10만 명당 자살 노인이 2000년 34.2명에서 2010년 80.3명으로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OECD 국가 중 1위에 해당한다고 한다[2].

노년기 경제생활 수준의 잦아드는 노인빈곤율이 매우 나쁜 수준인데다,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노인 자살율까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관련 주요 지표가 매우 낮은 현실에서 우리나라 노인부부 생활과 이들 지표와의 상관성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또 다른 측면은 노인 가구 비율의 급격한 증가현상이다. 노인가구란 자녀와 함께 노년기를 보내지 않고, 노인 1인 가구인 독거가구와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노인부부 가구를 합친 개념이다. 지난 2015년 3월에 보건복지부가 ‘2014년 노인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노인의 가구형태 및 가족관계, 소득·건강·기능상태,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해 2014년 3월부터 9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였다.

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67.5%가 자녀와 따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노인부부 가구가 44.5%나 차지하였고, 1인 독거가구는 23% 정도였다. 노인가구의 증가비율은 2004년 55%에서 2014년 67.5%로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3]. 이러한 노인가구의 증가는 자녀와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노년기 생활에서 노인부부 생활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대법원이 펴낸 ‘201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이혼 사건 11만 5,510건 가운데 황혼이혼이 3만 3,140건으로 28.7%를 차지한다고 한다고 하였다. 2014년 우리나라 이혼한 부부 3쌍 중 1쌍은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의 ‘황혼 이혼’인 것으로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전체 이혼에서 황혼 이혼이 차지한 비율은 2010년 23.8%을 보인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다가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4].

노년기 부부생활 중 폭력적인 공격행동이 많거나, 의사소통 및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황혼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5].

본 연구는 노년기 부부생활 환경요인에 초점을 맞추

어 노년기 결혼생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와 환경요인간의 중요도를 밝혀 노년기 부부생활 관련 정책이나 사회복지 현장 프로그램에 활용토록 함으로서 황혼이혼 등 노년기에 나타나는 여러 사회현상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노년기 부부생활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고찰해보면,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연구되어졌다고 본다.

첫째, 노년기 부부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관련 연구경향[6-9]이다. 둘째, 노년기 부부생활에는 부부간의 갈등, 결혼 불안정성, 이혼의도 등 부정적인 상황이 있다는 전제아래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을 가져오는 원인을 밝혀서 부부 갈등의 문제, 결혼 불안정성의 문제, 이혼의도 등 부정적인 문제를 해소해 보려는 연구경향[10-13]이다. 셋째, 노년기 부부의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심리적 복지 등 노년기 부부생활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환경요인을 밝혀보려는 연구경향[14-17]들이다.

본 연구는 이들 세 가지 연구경향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노년기 부부생활로 인해 삶의 만족도와 결혼만족도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요인들에 주목하고,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경제상태, 자녀요인, 성문제 등 어느 단편적인 요인에 중점을 둔 연구경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년기 부부 문제와 관련한 상담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의 자문과 몇몇 노인부부 사전 심층면담을 통해 성격적합성, 성역할태도, 경제상태, 신뢰도 등과 학력, 주거상태, 자녀 등의 인구학적특성 등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노년기 부부생활의 만족도 증진요인이 무엇이고 그 요인들 중에서 중요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목적을 가짐으로서, 본 연구가 노인복지학 노인부부 상담분야에서 학문적으로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2. 이론적 배경

2.1 노년기 부부생활

현재 우리나라 노년기 부부생활은 크게 3가지로 특징지어볼 수 있다. 첫째,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는 노인 단

독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노인 단독가구의 빈곤율도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황혼이혼의 증가현상이다.

부부관계는 어느 시기를 중요하지만, 특히 노년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유는 노년기는 ‘빈둥지 시기’로 특징지어 지는데 가족생활 주기 상 부부만 남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랜 직장생활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는 등의 이유로, 과거에 비해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의 부부생활은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서 요구되는 노년기 부부의 역할 재정립은 노년기 부부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고, 평균 수명 연장과 함께 이러한 ‘빈둥지 시기’가 늘어나게 되는 것은 노년기 삶의 중심이 부부관계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최근 자녀와 함께 살기보다는 부부끼리만 노년을 지내는 노인가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고려해볼때 노년기 부부생활에 대한 연구는 더욱 필요하다고 보았다[15].

노년기 부부생활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해보면, 최성재·장인협(2014)은 부부는 결혼하여 가족을 형성하면서 일생을 통하여 가장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배우자는 가장 친한 친구, 도움 제공자, 대화 상대, 정서적 지지자로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보았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자녀양육기간의 단축으로 자녀가 성장하거나 독립하여 부모를 떠난 후 부부가 같이 생활하는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다고 보고, 특히 자녀가 모두 떠나가고 노인부부만 남게 되는 경우 부부가 함께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로 인해 노년기 부부생활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18].

이와는 반대로, 부부의 특성은 가족 내에서 가장 친밀하기도 하지만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간의 애정과 친밀감이 줄어들게되면 상호기대가 어긋나는 것에 대한 좌절감과 불만이 부부갈등으로 나타나게 되고, 부부관계가 불안정해지면서, 쉽게 이혼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다고 한다[19].

Gottman(1999)은 불행한 결혼은 질병 발생률을 높이고 심지어 수명까지도 단축시킨다고 하였다[20]. Karney와 Bradury(1995)는 부부생활이 만족스러운 경우 부부

들의 심리적 고통을 결혼생활 만족이 완충역할을 한다고 하였다[21].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결혼만족여부가 이혼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변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노년기 부부생활의 위기를 나타내주는 황혼이혼의 증가는 결혼생활의 불만이 근본적인 원인임을 지적한 연구들이다.

조혜숙(2011)은 50대 이상의 중·노년기를 대상으로 부부관계변인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부부관계와 결혼만족도간에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조절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부부관계요인에서는 애정관계와 헌신 및 책임, 여가공유와 가사분담 인식, 부부간 의사소통이 결혼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즉 애정관계가 좋을수록, 헌신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여가 공유가 높을수록 그리고 가사분담 인식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부부 관계를 헌신과 책임을 다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결혼생활을 함께겠다는 강한 의지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또한 성적인 친밀감이 높고, 부부간의 애정표현을 솔직하게 하며, 생활에 만족할수록, 부부가 함께 외식이나 여행, 영화, 쇼핑과 운동 등을 함께 즐기는 등 여가생활이 높으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14].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노년기 부부생활의 중요성을 밝힌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2.2 노년기 부부의 환경요인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도달한 이후 사회 여러 분야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여 2018년에는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가 14.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만이 사는 노인가가 늘어나고, 이와 함께 노년기부부의 결혼지속 년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노년기부부의 결혼생활 장기지속이라는 사회적 변화는 오늘날 황혼이혼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한다[22].

황혼이혼의 증가와 함께 노년기부부의 결혼생활에 대

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황혼이혼을 가져 오는 원인, 노년기부부 친밀감을 높이는 요인, 노년기 결혼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환경요인, 노년기 소외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요인 등 노년기 부부의 환경요인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노년기 부부의 환경요인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학력, 결혼기간, 소득수준 등 배우자 개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된 변인, 둘째, 부부간의 성역할 태도, 상호 존중감, 성격 적합성 등 부부 자신들의 상호관계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 셋째, 가족의 지지, 사회적 지지, 친구관계 지지 등 부부생활 외적자원에 의한 환경요인이 그것이다.

박연옥(2012)은 노년기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노년기 부부의 환경요인을 성역할 태도와 자아존중감, 성인자녀 결속도, 부부 의사소통, 나이와 성별, 주관적 생활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 직업, 학력, 월 평균 가구소득, 종교, 배우자와 종교 동일여부, 동거인 수, 생존 자녀수, 결혼지속 년수, 배우자와의 나이차 및 배우자와의 연령형태 등 18가지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22].

김효민·박정윤(2013)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자원 변인과 부부관계 변인으로 크게 나누고, 개인자원 변인에는 자아존중감, 원가족 건강성, 부모효능감으로 다시 하위변인을 설정하였다. 부부관계 변인에는 배우자 유사성, 배우자 지지, 회복시도 등으로 하위변인을 설정하여 연구하였다[19].

조영순(2013)은 노년기 부부의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결혼배경 요인, 자녀지지 요인, 부부 갈등 요인, 양성평등의식 요인 등 4가지 독립변인으로 연구하였다[23].

김승익(2014)의 노년기 재혼자의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건강상태와 경제상태의 개인요인, 재혼 지지도와 친밀감의 자녀요인, 의사소통과 성생활만족도의 부부요인,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의 사회요인 등 다양한 환경요인으로 노년기 재혼부부의 결혼생활 만족도를 연구하였다[17].

조혜숙·최수일(2011)의 노년기 부부관계 요인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는 부부관계 요인을 친밀소통, 애정표현, 의사소통 등 3가지 요인으로 단순화시켜 연구하였다[16].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어느 한 가지 유형에 치우치거나 단편적인 방향에서 연구되어진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년기 부부생활 상담 전문가 등 현장 실무자의 자문과 학계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 몇몇 노인부부를 대상으로 사전 심층 설문예 의해 노년기 부부생활의 여러 환경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상위 4가지 요인, 즉 성격적합성, 성역할 태도, 부부간의 신뢰도, 경제상태 등을 선정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요인과 함께 연구에 활용하였다.

2.3 노년기 부부의 만족도

2.3.1 결혼생활 만족도

결혼만족도(maritalsatisfaction)에 대한 개념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Hawkins(1966)는 결혼만족도란 결혼생활에 대한 부부 개인별 주관적인 태도와 감정이라고 하였다[24].

Burr(1973)는 결혼만족도란 결혼기간동안 장기간에 걸쳐 변화할 수 있는 태도이므로, 어느 주어진 시점에서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시간적 차원에 의해 경험되어지는 선호의 태도로 정의하였다[25].

McNamara와 Bahr(1980)41)에 의하면 결혼만족도의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양극연결모형은 긍정적 가치의 구성요소인 적응과 사랑, 공통적 관심 등과 부정적 가치의 구성요소인 불만의 횡수나 이혼의 생각, 외로움 등의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조화나 균형으로 측정한다고 하였다. 둘째, 분리영역 모형은 삶의 행복은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두 가지 상호간에 관련성이 없는’ 독립적 영역으로 긍정과 부정으로서 파생된 복합된 상태라고 하였다. 셋째, 단극모형은 결혼생활에서 만족하는 정도나 특징과 같은 것으로서 하나의 기능으로 구성되는 형태라고 하였다[26].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보면, 결혼만족도와 관련한 초기연구들은 1939년 Burgess와 Cottrell(1939)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결혼성공도(marital success)로 명명하면서 개념적으로 독특하고 상징적 의미를 지닌 일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여 연구하였다[27].

1960년 이후 부부생활에서의 결혼만족도와 관련한 연구들은 사회인구학적인 변인과 심리학적인 변인들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고, 특히 성관계와 의사소통, 경제적 문제나, 자녀문제 등 결혼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4].

그 이후 연구에서 김정석·최형주(2011)는 노년부부가 구 남편과 부인의 부부관계 만족도 연구에서, 노년기는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른 시기보다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하고, 부부관계는 남편과 부인 두 사람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특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하여 개인과 배우자의 특성을 함께 반영하여, 남편과 부인이 서로에게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그리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남편의 만족도는 부인의 특성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대체로 자신의 특성 만에 의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부인의 부부관계 만족도는 본인의 특성뿐 아니라 남편의 특성에 따라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15].

김두길·유영달(2015)은 중년기 부부의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남편은 부부문제와 교육수준, 계획 다시 세우기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아내의 부부문제 수용과 연령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10].

류석진·조현주(2015)는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최근 연구에서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비의 영향력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부부갈등은 결혼만족도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고, 부부갈등시 부부가 사용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과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갈등이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한다고 하였다[28].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부부생활에서 상대 배우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중심으로 결혼만족도를 정의하고 연구하고자 하였다. 즉 지금까지 결혼생활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결혼생활이 즐겁다고 생각하는지와 상대 배우자와 사이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등 감정적인 측면을 중시하였다.

2.3.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라는 개념은 학자에 따라 정의가 다양하다. 우선 Diener, Suh, Lucas, & Smith(1999)는 삶의 만

족도의 개념에 대하여,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의 욕구와 기대, 희망 등을 다른 준거 집단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정서적 경험으로 정의하여 비교의 방법으로 규정하였다[29].

Clipp(2002)은 삶의 만족도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삶의 만족도란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이나 복수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30].

Havighurst(1968)는 삶의 만족도란 현재 상황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유지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활동에 대하여 갖고 있는 정서적 만족감이라고 정의하였다[31].

국내학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을 고찰해보면, 이현진(2014)은 삶의 만족도란 삶의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의 결합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타당하다고 보는 외형적 만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인생에 대해 성공적이라고 느낌, 판단, 인정과 자신의 기대수준에 대한 충족 등 개인이 지각한 심리적 상태와 이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서 오는 만족감이라고 정의하였다 [32].

이규현(2007)은 삶의 만족도란 사람들의 심리적, 생리적, 사회적 조건 속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감의 합치여부에서 오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과 환경적인 요인은 생활경험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감정으로서 기대와 보상, 긍정적 가치, 복지, 성취감, 기쁨, 욕구충족, 사기와 행복의 개념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개념이라고 하였다[33].

김정여(2011)는 삶의 만족도와 유사한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을 ‘안녕감에 대한 일반적 느낌, 삶에 대한 만족도(satisfaction) 안녕(will-being)’ 등으로 정의한 것에 기초하여 행복에 대한 질문을 삶의 만족도로 변수화하여 연구하였다[34].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도란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고 보아, 자신의 인생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느끼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결혼만족도의 개념보다 보다 광범위한 만족도의 의미로,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지, 자신에 대해 만족하는지, 심리적 상태에 만족하는지 등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을 중심으로 정의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2.4 노년기 부부의 환경요인과 만족도와의 관련성 선행연구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나 삶의 만족도와 환경요인과의 상호 관련성을 밝히는 선행연구들을 고찰하면, 박연옥(2012)은 노년기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전체노인의 경우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부부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배우자와 종교 동일여부, 성인자녀 결속도, 주관적 건강상태임을 밝혔다. 남성노인의 경우는 부부 의사소통, 성인자녀 결속도, 자아존중감이며, 여성노인의 경우는 부부 의사소통, 배우자와 종교 동일여부가 노년기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밝힘으로서 노년기 부부의 환경요인이 노년기 부부친밀감과 상호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혔다[22].

김길현·하규수(2012)는 노년기 부부관계 요인이 결혼만족도 및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첫째, 결혼만족도에는 부부관계 요인의 애정생활, 여가공유, 친밀감 및 의사소통이 정(+)의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경제적 갈등은 부(-)의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둘째, 이혼의도에 있어서는 부부관계의 경제적 갈등이 정(+)의 영향을 미쳤고, 반면에 애정생활 및 친밀감은 부(-)의 영향을 미쳤다고 함으로서 노년기 부부 환경요인이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관련성을 검증하였다[35].

조혜숙·최수일(2012)은 노년기 부부관계 요인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첫째, 친밀소통, 애정표현 및 여가공유가 긍정적 복지감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여가공유를 제외한 친밀소통 및 애정표현이 부정적 복지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하였다. 둘째, 긍정적 복지감 및 부정적 복지감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힘으로서 노년기 부부관계 요인과 노년기 부부의 심리적 복지감과는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혔다[16].

그 외에도 임나현·하규수(2012)는 60세 이상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이들 변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36].

최영아(2002)는 재혼자의 노년기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노년기 재혼자의 환경요인인 전혼만족도, 현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계자녀와의 관계, 친자녀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 등이 결혼만족도와 영향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37].

김시월·조향숙(2012)은 중·고령자 단독가구의 삶의

만족도와 재정, 건강, 심리 상태와의 관계 연구에서 자녀와 함께 살지 않은 중·고령자의 환경요인인 재정, 건강, 심리 상태가 삶의 만족도와 어떠한 영향관계에 있는지를 검증하였다[38].

김희국(2012)은 지역사회 거주하는 노인부부의 부정적 환경요인인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연구하여 노인의 우울은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12].

이러한 노년기부부의 환경요인과 결혼만족도나 삶의 만족도와의 영향 관계성을 검증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노년기 부부의 환경요인이 결혼생활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게 되었다.

3. 연구방법

3.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3.1.1 연구가설

본 연구는 60세 이상 노년기를 맞이한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배우자 결혼생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주요 환경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목적을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노년기 부부간의 성격적합성은 결혼생활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노년기 부부간의 성역할태도는 결혼생활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노년기 부부간의 신뢰도는 결혼생활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노년기 부부의 경제상태는 결혼생활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 노년기 부부의 환경요인이 결혼생활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3.1.2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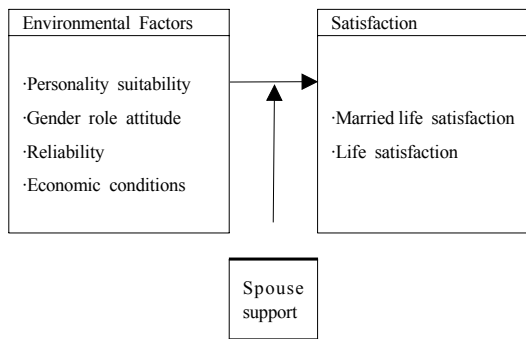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표본 선정 및 자료 수집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과 경기주변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노인복지기관의 현장 전문가에게 설문내용에 대해서 1차 자문을 받았고, 사전 예비조사를 통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후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조사방법은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노인복지기관 등을 방문하여 그룹별 사전 작성요령을 설명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에 활용된 설문지는 총 400부를 회수하여 결측치가 많은 12부를 제외한 388부가 통계분석에 활용되었다.

3.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된 노년기 부부의 환경요인의 하위변인인 신뢰도에 대한 척도는 임나현(2013)의 척도[39]와 박연옥(2012)의 척도[22]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고, 성격적합성에 대한 측정도구는 김효민(2010)의 척도[40]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으며, 경제적상태와 성역할태도에 대한 척도는 성계화(2012)의 척도[41]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독립변수의 척도구성은 신뢰도 5문항, 성격적합성 6문항, 경제적상태 4문항, 성역할태도 5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 = 1”부터 “매우 그렇다 = 5”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환산하였고, 각 문항의 점수를 더하여 영향정도를 측정하였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결혼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변인에 대한 측정도구는 이재화(2011)의 척도[42]와 성계화(2012)의 척도[41]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종속변수의 척도구성은 결혼만족도 8문항, 삶의 만족도 7문항으

로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 = 1”부터 “매우 그렇다 = 5”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환산하였고, 각 문항의 점수를 더하여 결혼생활과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을 측정하였다.

조절변수로 사용된 배우자지지 변인은 김효민(2010)의 척도[40]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고, 문항은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 = 1”부터 “매우 그렇다 = 5”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환산하였다.

3.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통계분석, 척도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가설검증순으로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빈도, 표준편차,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둘째, 본 조사에서는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와, Varimax 회전방식에 의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모형으로 설정된 각 변수들 간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분석결과

4.1 조사 표본

분석에 사용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에서는 남성 145명(37.4%), 여성 243명(62.6%)이었고, 연령은 60~64세 138명(35.6%), 65~69세 82명(21.1%), 70~74세 81명(20.9%), 75~79세 56명(14.4%), 80세 이상 31명(8.0%)이었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하 89명(22.9%), 중학교 졸업 79명(20.4%), 고등학교 졸업 151명(38.9%), 대학교 졸업이상 69명(17.8%)이었으며, 종교는 없음 75명(19.3%), 기독교 43명(11.1%), 천주교 198명(51.0%), 불교 72명(18.6%)으로 기독교를 가장 많이 믿고 있었다.

주거상태는 자가 314명(80.9%), 전세 45명(11.6%), 월세/임대 29명(7.5%)이었으며, 건강상태는 매우 나쁨 22명(5.7%), 나쁨 83명(21.4%), 보통 182명(46.9%), 좋음 58명(14.9%), 매우 좋음 43명(11.1%)으로 건강상태

가 보통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자녀수는 1~2명이 210명(54.2%)으로 가장 많았고 3~4명 146명(37.6%), 5명 이상 32명(8.2%)이었으며,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 83명(21.4%), 100만원~200만원 미만 124명(32.0%), 200만원~300만원 미만 92명(23.7%), 300만원~400만원 미만 44명(11.3%), 400만원~500만원 미만 24명(6.2%), 500만원 이상 21명(5.4%)이었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Variables		Frequency	%
Sum		388	100
Gender	Male	145	37.4
	Female	243	62.6
Age	60 - 64	138	35.6
	65 - 69	82	21.1
	70 - 74	81	20.9
	75 - 79	56	14.4
	more than 80	31	8.0
Level of education	Below elementary school graduate	89	22.9
	Middle school graduate	79	20.4
	High school graduate	151	38.9
	More than university graduate	69	17.8
Religion	Christianity	43	11.1
	Catholic	198	51.0
	Buddhism	72	18.6
	Not Religious	75	19.3
Residence state	Owner	314	80.9
	Rent by year	45	11.6
	Rent by month	29	7.5
Health state	Very poor	22	5.7
	Poor	83	21.4
	Usually	182	46.9
	Good	58	14.9
	Very good	43	11.1
Household Income	under 100	83	21.4
	100-199	124	32.0
	200-299	92	23.7
	300-399	44	11.3
	400-499	24	6.2
	more than 500	21	5.4
Children	1-2	210	54.2
	3-4	146	37.6
	More than 5	32	8.2

4.2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척도가 제대로 구성되어야 연구가설을 명확히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척도에 대한 타당도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타당도 분석은 Kaiser 규칙이 있는 Varimax 직각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으로 실시하였고, 요인추출은

고유치 1.0이상과 요인 적재량 0.5이상인 경우를 유효한 변수로 하여 요인화 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동일한 개념이 다항목으로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적일관성 검증의 Cronbach's α 계수로 확인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계수의 값이 0.6이상일 경우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4.2.1 환경요인

노인 부부의 환경요인은 22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이들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이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 1은 성격 적합성, 요인 2는 성역할 태도, 요인 3은 신뢰도, 요인 4는 경제상태로 명명하였고, 누적분산은 65.830%였으며, 2개 문항의 요인값이 0.5이하로 나타나 분석 시 제거되었다.

요인 1은 '성격 적합성'으로서, '나와 배우자는 삶에 대한 가치관이 비슷하다', '나와 배우자는 성격상 일상생활을 보내는 방법이 비슷하다', '나와 배우자는 의사소통 방식이 비슷하다', '나와 배우자는 살아가면서 성격이 많이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나와 배우자는 서로에게 화를 내지 않은 편이다', '나와 배우자는 상호 이해심이 높다' 등의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2는 '성역할 태도'로서, '우리 부부는 각자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상호 배려하는 편이다', '우리 부부는 사회에서 각자의 활동에 대해 상호 지지하는 편이다', '우리 부부는 가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상호 존중하는 편이다', '우리 부부는 집안의 중요한 일을 함께 결정하는 편이다', '우리 부부는 가사 일을 서로 분담하여 서로 돕는 편이다'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3은 '신뢰도'로서, '나는 비밀스런 일을 누구보다도 먼저 배우자에게 털어 놓는다', '나는 마음속의 진실 된 감정을 배우자에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나는 배우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겉과 속이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나와 배우자는 서로의 개인적인 문제도 상의한다', '나는 배우자가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하는 편이다'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4는 '경제상태'로서, '우리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생활이 힘든 적이 거의 없다', '우리 부부는 상대방의 소득에 대해 상호 불만이 없다', '우리 부부는 돈 문제로 거의 싸우지 않는다', '우리 부부는 재정적인 면에서 앞으로 안정되어 보인다'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성 분석에 따른 Cronbach's α 계수는 0.8이상의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the environment factor

Factor	Item	Component	Eigen Value	Cumulative (%)	Cronbach's α
Personality suitability	These values are similar to my spouse for life.	.781	3.644	18.221	.895
	My spouse is sending is similar in nature to everyday life.	.749			
	My spouse is a way to communicate is similar.	.715			
	I think my partner is going to resemble a lot of personality in life.	.715			
	Listed spouse does tend to be angry with each other.	.598			
	My spouse has a high mutual understanding.	.583			
Gender role attitude	My husband and tend to be mutually considerate to their own favorite.	.799	3.544	65.942	.879
	My husband and tend to support each other for their activities in the community.	.762			
	My husband and tend to respect each other their respective roles in the home.	.745			
	We tend to couple with the important decision of your house.	.706			
	My husband and tend to help each other by sharing the household chores together.	.618			
Reliability	First of all, I confided to the spouse who placed a secret one.	.733	3.111	51.497	.841
	I do not mind it difficult to express true feelings to your spouse.	.706			
	I am not pretending to talk differently when you're talking about your spouse.	.688			
	My spouse is on each individual problems.	.658			
	I tend to think they loved trustworthy partner.	.648			
Economic conditions	My husband and had little tough marriage is an economic issue.	.796	2.867	65.830	.823
	My wife has no complaints about the other's mutual earnings.	.742			
	My wife rarely fight with money.	.742			
	My wife seems to be stable in the future financial side.	.651			

값을 보였으며, 성격 적합성 0.895, 성격할 태도 0.879, 신뢰도 0.841, 경제상태 0.823으로서 신뢰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4.2.2 배우자지지

배우자지지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은 측정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분석에서는 고유값 1.0이상, 요인적재량 0.5이상인 경우를 유효한 변수로 하여 요인화

하였다. 신뢰성 분석에서는 동일한 개념이 다항목으로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이 값이 0.6이상이면 신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우자 지지는 총8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이들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이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분산은 69.898%이었고, 모든 문항의 요인값이 0.5이상으로서 분석 시 제거된 문항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나의 배우자는 내가 필요할 때 힘이 되어 준다’, ‘나의 배우자는 내가 슬프거나 우울할 때 진정으로 믿고 의지

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the spouse support

Factor	Item	Component	Eigen Value	Cumulative (%)	Cronbach's α
Spouse support	I give my spouse the power when you need it.	.875	5.592	69.898	.938
	My spouse can truly count on when I was sad or depressed.	.870			
	My spouse gives helps the sick when I heard the market.	.863			
	My spouse gives it gives peace of mind not to worry about it, as if something bad happens to me.	.849			
	My spouse makes you feel comforted when I was poor.	.843			
	My spouse allows interested worry about my health.	.824			
	My spouse makes a good errand.	.794			
	My spouse helps with the housework well.	.764			

할 수 있다’, ‘나의 배우자는 내가 아플 때 도움을 주며 시중을 들어준다’, ‘나의 배우자는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같이 걱정해주며 안심하도록 지지해 준다’, ‘나의 배우자는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위로를 해준다’, ‘나의 배우자는 나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준다’, ‘나의 배우자는 집안일을 잘 도와준다’ 등의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s α 계수는 0.938로서 높은 신뢰수준을 나타냈다.

4.2.3 만족도

노년기 부부의 만족도는 1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이들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이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 1은 결혼 만족도, 요인 2는 삶의 만족도로 명명하였고, 누적분산은 68.495%였으며, 모든 문항의 요인값이 0.5이상으로서 분석 시 제거된 문항이 없었다.

요인 1은 ‘결혼 만족도’로서, ‘나는 확실히 나의 결혼에 만족한다’, ‘지금까지 나의 결혼생활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결혼생활이 생각했던 것만큼 즐겁다고 생각한다’, ‘나의 결혼생활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나에게 만족감을 많이 준다’, ‘앞으로 나의 결혼생활은 성공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등의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2는 ‘삶의 만족도’로서, ‘요즘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족스럽게 잘 지내는 편이다’, ‘요즘 나의 심리

적 상태에 만족한다’, ‘요즘 하루를 보내는 방법에 만족한다’, ‘요즘 나는 행복사람이라고 자주 느끼고 있다’, ‘전반적으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등의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성 분석에 따른 Cronbach's α 계수는 0.9이상의 값을 보였으며, 결혼 만족도 0.936, 삶의 만족도 0.914로서 신뢰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4.3 가설검증

노년기 부부의 환경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하고, 환경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 모형에서는 통제변인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성별과 종교, 주거상태는 더미변수화하여 투입하였다. 2단계 모형에서는 통제변인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독립변인인 환경요인을 투입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통제된 상태에서 만족도에 대한 환경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으로 확인하였으며, VIF 값의 경우 1단계에서는 1.106~2.583, 2단계에서는 1.152~2.764로서 10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종속변인인 만족도가 결혼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각각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Table 4.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the satisfaction

Factor	Item	Component	Eigen Value	Cumulative (%)	Cronbach's α
Married life satisfaction	I am definitely happy with my marriage.	.859	5.696	37.977	.936
	So far, I think my marriage successful.	.841			
	I think the fun as much as we thought this marriage.	.827			
	My marriage gives a lot of satisfaction to me than anything else.	.800			
	Forward my marriage is considered successful.	.767			
	I often have a pleasant conversation with your spouse.	.762			
	I am on very good terms with a spouse.	.720			
	Spouses often gives me the courage to encourage.	.694			
Life satisfaction	These days, I feel that they are valuable people.	.806	4.578	68.495	.914
	I usually spend a good part satisfactorily in relationships with people.	.793			
	Nowadays satisfied with my psychological state.	.776			
	The satisfaction these days on how to send a day.	.774			
	These days, I often feel as happy people.	.752			
	Overall, I will be satisfied with yourself.	.700			
I am satisfied with the present life.	.655				

4.3.1 환경요인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5] 는 노년기 부부의 환경요인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통제변인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8.942$,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20.7%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성별($t=-3.192$, $p<.01$)은 결혼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주거상태1 ($t=2.182$, $p<.05$)과 건강상태($t=4.275$, $p<.001$), 월평균 소득($t=3.088$, $p<.01$)은 결혼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중에서 건강상태($\beta =.206$)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며, 남성이고 자가에 거주하면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환경요인을 추가로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47.812$,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65.8%로서 1단계보다 45.1%가 증가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건강상태($t=2.525$, $p<.05$)가 결혼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요인의 성격 적합성($t=6.090$, $p<.001$)과 성역할 태도($t=8.152$, $p<.001$), 경제상태($t=3.624$, $p<.001$)가 결혼 만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성역할 태도($\beta=.383$)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며, 성격 적합성과 성역할 태도,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년기 부부가 서로 성격이 비슷하고 많이 닮아가고 있으며 상호 이해심이 높을수록, 각자의 역할을 상호 배려하고 지지하며 존중할수록, 경제문제로 인해 힘든 적이 없고 돈 문제로 거의 싸운 적이 없을수록 자신들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신뢰도는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부부 사이에 신뢰한다고 해서 결혼 만족도가 높아지는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노년기 부부의 결혼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서는 성격 적합성이나 성역할 태도, 경제상태와 같은 환경요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3.2 환경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년기 부부의 환경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1단계 회귀모형은 $F=8.842$,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20.6%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주거상태

Table 5. Environmental factors impact on marital satisfaction

Variables		Level	Model I			Model II		
			β	t	P	β	t	P
Demographic characteristic	Gender(F=1) ¹⁾		-.161	-3.192**	.002	-.023	-.672	.502
	Age		-.101	-1.598	.111	-.024	-.571	.569
	Level of education		.072	1.277	.202	.002	.053	.958
	Religion 1(Christianity=1) ²⁾		.070	1.260	.209	-.007	-.178	.859
	Religion 2(Catholic=1)		.030	.473	.636	-.040	-.943	.346
	Religion 3(Buddhism=1)		.112	1.902	.058	.013	.337	.736
	Residence state 1(Owner=1) ³⁾		.161	2.182*	.030	-.062	-1.235	.218
	Residence state 2(Rent=1)		.068	.938	.349	-.013	-.273	.785
	Health state		.206	4.275***	.000	.082	2.525*	.012
	Children		.100	1.729	.085	.044	1.152	.250
Household income		.171	3.088**	.002	.049	1.305	.193	
Environmental Factors	Personality suitability					.297	6.090***	.000
	Gender role attitude					.383	8.152***	.000
	Reliability					.060	1.339	.181
	Economic conditions					.154	3.624***	.000
F			8.942***			47.812***		
R ²			.207			.658		
ΔR^2						.451		

* $p<.05$, ** $p<.01$, *** $p<.001$, ¹⁾Gender(M=0), ²⁾Religion(N=0), ³⁾Residence State(Rent=0)

1($t=3.906, p<.001$)과 건강상태($t=5.167, p<.001$), 자녀수($t=2.127, p<.05$)가 삶의 만족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중에서 건강상태($\beta=.250$)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며, 자가에 거주하면서 건강상태가 좋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2단계 회귀모형은 $F=26.334,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51.5%로서 1단계보다 30.9%가 증가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건강상태($t=3.890, p<.001$)와 자녀수($t=2.349, p<.05$)가 삶의 만족도에 정(+)²⁾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환경요인의 성역할 태도($t=4.938, p<.001$)와 신뢰도($t=4.263, p<.001$), 경제상태($t=5.049, p<.001$)가 삶의 만족도에 정(+)³⁾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성역할 태도($\beta=.276$)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며, 성역할 태도와 신뢰도,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년기 부부가 각자의 역할을 상호 배려하고 지지하며 존중할수록, 진실된 감정으로 서로를 신뢰할수록, 경제문제로 인해 힘든 적이 없고 경제상태가 안정적일수록 자신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성격 적합

성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부부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비슷하다고 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노년기 부부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서는 성역할 태도와 신뢰도, 경제상태와 같은 환경요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3.3 환경요인과 만족도의 영향관계에서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

노년기 부부의 환경요인과 만족도의 영향관계에서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는 조절회귀분석(moderated regression analysis)으로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는 조절변인과 상호작용항을 모두 투입한 회귀모형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조절변수는 유의하지 않으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면 순수조절변수(pure moderator),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항이 모두 유의하면 유사조절변수(quasi moderator),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항 모두 유의하지 않으면 조절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하고 환경요인과 배우자지지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으며, 다음 단계

Table 6. Environmental factors impact on life satisfaction

Variables		Level	Model I			Model II		
			β	t	P	β	t	P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F=1) ¹⁾		-.064	-1.270	.205	.051	1.268	.205
	Age		-.084	-1.335	.183	-.048	-.956	.339
	Level of education		.086	1.530	.127	.032	.707	.480
	Religion1(Christianity=1) ²⁾		.090	1.603	.110	.035	.793	.428
	Religion 2(Catholic=1)		.067	1.044	.297	.005	.098	.922
	Religion 3(Buddhism=1)		.072	1.220	.223	.000	.006	.995
	Residence state 1(Owner=1) ³⁾		.229	3.906***	.000	.089	1.490	.137
	Residence state 2(Rent=1)		.120	1.654	.099	.073	1.265	.207
	Health state		.250	5.167***	.000	.151	3.890***	.000
	Children		.123	2.127*	.034	.107	2.349*	.019
Household income		.083	1.495	.136	-.038	-.852	.395	
Environmental Factors	Personality suitability					.012	.198	.843
	Gender role attitude					.276	4.938***	.000
	Reliability					.226	4.263***	.000
	Economic conditions					.255	5.049***	.000
F			8.842***			26.334***		
R ²			.206			.515		
ΔR^2						.309		

* $p<.05$, *** $p<.001$, ¹⁾Gender(M=0), ²⁾Religion(N=0), ³⁾Residence State(Rent=0)

에서 독립변인인 환경요인과 조절변인인 배우자지지의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추가로 투입하였다.

둘째, 추가로 조절변인인 가족지지를 추가로 투입하여 2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 방법을 사용하였고, 환경요인을 구성하는 성격 적합성, 성역할 태도, 신뢰도, 경제상태와 배우자지지의 상호작용항을 구하여 분석 시 투입하였다.

VIF 값의 경우 1단계 1.153~2.939, 2단계 1.158~3.334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종속변인인 만족도가 결혼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각각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단계적 검증결과는 첫째, 환경요인과 결혼 만족도의 영향관계에서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Model I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환경요인, 배우자지지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고, Model II에서는 환경요인과 배우자지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Table 7]과 같이 Model I은 F=58.631,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71.1%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건강상태($t=2.537$, $p<.05$)와 환경요인의 성격 적합성($t=4.444$, $p<.001$), 성역할 태도($t=4.337$, $p<.001$), 경제상태($t=3.575$, $p<.001$), 배우자지지($t=8.724$, $p<.001$)가 결혼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환경요인의 성격 적합성과 성역할 태도, 신뢰도, 경제상태와 배우자지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Model II는 $F=46.945$,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71.9%로서 Model I보다 0.2% 증가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건강상태($t=2.476$, $p<.05$)와 환경요인의 성격 적합성($t=4.337$, $p<.001$), 성역할 태도($t=4.135$, $p<.001$), 경제상태($t=3.527$, $p<.001$), 배우자지지($t=8.691$, $p<.001$)가 결혼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은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년기 부부의 환경요인인 성격 적합성, 성역할 태도, 신뢰도 및 경제상태가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환경요인과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에서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Model I에서는

Table 7. Moderating effect of support from the spouse effect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factors and marital satisfaction

Variables		Model I			Model II		
		β	t	P	β	t	P
Demographic characteristic	Gender(F=1) ¹⁾	.006	.203	.839	.002	.070	.944
	Age	-.032	- .828	.408	-.035	-.916	.360
	Level of education	.016	.466	.642	.017	.505	.614
	Religion1(Christianity=1) ²⁾	-.007	-.215	.830	-.006	-.188	.851
	Religion 2(Catholic=1)	-.044	-1.136	.257	-.043	-1.106	.270
	Religion 3(Buddhism=1)	.005	.152	.880	.004	.118	.906
	Residence state 1(Owner=1) ³⁾	-.039	-.856	.393	-.036	-.775	.439
	Residence state 2(Rent=1)	.009	.204	.838	.011	.249	.804
	Health state	.075	2.537*	.012	.074	2.476*	.014
	Children	.060	1.716	.087	.061	1.719	.086
Household income	.049	1.417	.157	.041	1.178	.240	
Environmental Factors	Personality suitability	.204	4.444***	.000	.205	4.337***	.000
	Gender role attitude	.206	4.337***	.000	.209	4.135***	.000
	Reliability	.011	.261	.794	.014	.336	.737
	Economic conditions	.139	3.575***	.000	.138	3.527***	.000
Spouse support		.384	8.724***	.000	.385	8.691***	.000
Personality suitability*Spouse support					.006	.122	.903
Gender role attitude*Spouse support					-.004	-.096	.923
Reliability*Spouse support					.060	1.586	.114
Economic conditions*Spouse support					.031	.840	.402
F		58.631***			46.945***		
R ²		.717			.719		
ΔR^2		.059			.002		

* $p<.05$, *** $p<.001$, ¹⁾Gender(M=0), ²⁾Religion(N=0), ³⁾Residence State(Rent=0)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환경요인, 배우자지지를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였고, Model II에서는 환경요인과 배우자지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Table 8]과 같이 Model I은 $F=25.691,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52.6%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건강상태($t=3.850, p<.001$)와 자녀수($t=2.519, p<.05$), 환경요인의 성역할 태도($t=3.271, p<.01$), 신뢰도($t=3.870, p<.001$), 경제상태($t=4.963, p<.001$), 배우자지지($t=2.880, p<.01$)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환경요인의 성격 적합성과 성역할 태도, 신뢰도, 경제상태와 배우자지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Model II는 $F=22.923,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54.3%로서 Model I보다 1.7% 증가하여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건강상태($t=3.810, p<.001$)와 자녀수($t=2.566, p<.05$), 환경요인의 성역할 태도($t=3.044, p<.01$), 신뢰도($t=3.847, p<.001$), 경제상태($t=4.773, p<.001$), 배우자지지($t=2.675, p<.01$)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성격 적합성과 배우자지지의 상호작용항

($t=2.320, p<.05$)과 경제상태와 배우자지지의 상호작용항($t=1.970, p<.05$)이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배우자지지는 성격 적합성과 경제상태 및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배우자 결혼생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 주변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40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결측치가 많은 12부를 제외한 388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성격적합성, 성역할 태도, 경제상태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 중에서 성역할 태도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성격적합

Table 8. Moderating effect of environmental factors and spouse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effect

Variables		Model I			Model II		
		β	t	P	β	t	P
Demographic characteristic	Gender(F=1) ¹⁾	.064	1.582	.114	.056	1.397	.163
	Age	-.052	-1.033	.302	-.053	-1.059	.290
	Level of education	.038	.848	.397	.040	.898	.370
	Religion 1(Christianity=1) ²⁾	.035	.794	.428	.048	1.097	.274
	Religion 2(Catholic=1)	.003	.065	.948	.015	.290	.772
	Religion 3(Buddhism=1)	-.003	-.066	.948	.006	.129	.898
	Residence state 1(Owner=1) ³⁾	.099	1.666	.097	.089	1.471	.142
	Residence state 2(Rent=1)	.082	1.441	.150	.073	1.259	.209
	Health state	.148	3.850***	.000	.146	3.810***	.000
	Children	.114	2.519*	.012	.117	2.566*	.011
Household income	-.038	-.864	.388	-.042	-.935	.351	
Environmental Factors	Personality suitability	-.029	-.481	.631	-.013	-.208	.835
	Gender role attitude	.200	3.271**	.001	.198	3.044**	.003
	Reliability	.205	3.870***	.000	.203	3.847***	.000
	Economic conditions	.249	4.963***	.000	.240	4.773***	.000
Spouse support		.164	2.880**	.004	.153	2.675**	.008
Personality suitability*Spouse support					.112	2.320*	.026
Gender role attitude*Spouse support					-.002	-.028	.978
Reliability*Spouse support					-.024	-.491	.624
Economic conditions*Spouse support					.095	1.970*	.048
F		25.691***			22.923***		
R ²		.526			.543		
ΔR^2		.011			.017		

* $p<.05$, ** $p<.01$, *** $p<.001$, ¹⁾Gender(M=0), ²⁾Religion(N=0), ³⁾Residence State(Rent=0)

성과 경제상태 순이었다. 둘째, 배우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성역할태도, 신뢰도, 경제상태로 밝혀졌다. 이들 변인 중에서 성역할태도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상태와 신뢰도 순이었다. 셋째, 배우자 결혼생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요인은 성역할태도와 경제상태로 나타났다. 넷째, 환경요인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환경요인은 성격적합성과 경제상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임나현·하규수(2012)의 연구에서 60세 이상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 변인이 결혼만족도에 적극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김시월·조향숙(2012)의 중·고령자 부부의 환경요인인 재정상태가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영향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노년기 부부생활에서 결혼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켜 인생 후반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는 여러 환경요인 중에서도 성역할태도와 경제상태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성역할태도 변인은 결혼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모두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높은 중요한 변인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년기 부부생활에서 경제상태가 중요하다는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현재의 노인빈곤율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부부생활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는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역할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즉 은퇴한 남편이 가사 일을 함께 하거나 시장을 함께 보는 등 전통적인 남성중심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 실천현장에서 노년기 성역할인식 전환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이나 관련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노년기 부부생활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는 경제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는 본 연구의 연구결과처럼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방향은 노년기 소득보장정책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즉 과거처럼 자녀와 함께 노년기를 보내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스스로 노후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노년기 부부의 어려운 현실을 관련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노인자살율이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정도로 노인자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자살율을 낮추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정책적으로 마련되고 있다고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 서처럼 노년기 부부의 중요한 환경요인으로 나타난 경제상태 호전, 성역할태도의 변화, 배우자 지지의 증진 등으로 노년기 부부의 삶의 만족도가 증진된다면 노인자살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노인복지 현장에서 단순히 안부전화나 요구르트 배달 등 생사확인 수준의 단순 정책이 아니라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후속연구에서 이를 고려하였으면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결혼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라는 긍정적인 만족도의 변인만을 사용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부정적인 변인인 이혼의도, 우울감, 자살충동 등도 함께 사용하여 부(-)적 영향관계도 고찰되었으면 한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연구기간과 연구비용의 한계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었으면 한다.

References

- [1] Yonhap: <http://www.yonhapnews.co.kr/dev/html>, 2015. 01. 21.
- [2] Kyunghyang: http://news.khan.co.kr/kh_news/art_print.html artid. 2013.01.29.
- [3] Ministry of Health and Wealfare, '2014 Senior Survey offal' presentation, 2015.3.31.
- [4] SEGYE.Com, 2015.11.3
- [5] S. S. Kang, W. K. Lim, "Effects of the Marital Conflict in Old Age on Elderly Divorce and Impulse to Commit a Crim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9, pp. 178-192,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9.178>
- [6] O. G. Kwon, K. H. Kang,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and Composition of a Marriage Enrichment Program of a Couple of Old Age",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7. No. 5, pp. 137-145, 2009.
- [7] C. G. Shim, "Development of Marriage Enrichment Program for the Elderly Couples - Application of the Intervention Research Method -", Ph. 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Women's University, 2007.

- [8] M. K. Jung, J. U. Kim, "A Case Study on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the Enhancement of Elderly 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8, No. 3, pp. 603-618, 2008.
- [9] Y. S. Bang, "The Development of Sexual Life Empowerment Program for Elderly Couples -Focused on the Application of Intervention Research Model-", Ph. 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heong-ju University, 2011.
- [10] D. G. Kim, Y. D. You, "Mediation Effect of Cognitive Emotion-regulation Strateg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11, pp. 177-191, 2015.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5.15.11.177>
- [11] M. S. Lee, "Marital Relationship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Elderly Population - The Effects of Marital Status and Marital Satisfaction -",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46, No. 4, pp. 176-204, 2012.
- [12] H. G. Kim, "The Effects of Depression on Quality of Lif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Marital Satisfaction among Community-dwelling Elderly Couple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43, pp. 319-344, 2012.
DOI: <http://dx.doi.org/10.15300/jcw.2012.12.43.319>
- [13] Y. S. Cho, "A Study on the Factors that Has an Effect on Divorce Intention of Aged Spouses -Centering on the Comparison of Aged Men and Aged Women", Ph.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ristian Studies Baek-seok University, 2013.
- [14] H. S. Cho, "The Effects of the Conjugal Relationship on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Ego-Resilience's Moderating Role of the Middle and Old Aged People", Ph. 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Hoseo University, 2011.
- [15] C. S. Kim, H. J. Choi, "Satisfaction on Marital Relationship of Husband and Wife in Old Age",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34, No. 2, pp. 1-15, 2011.
- [16] H. S. Cho, S. I. Choi, "Effects of the Spousal Relationship's Factor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1. No. 11, pp. 313-328, 2011.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1.11.11.313>
- [17] S. I. Kim, "Factors affecting Marital Satisfaction of the Remarried Elderly", Ph.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4.
- [18] S. J. Choi, I. H. Chang, 『Social Welfare for Older Persons in Aging Society』, pp. 246-247,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4.
- [19] H. M. Kim, J. Y. Park, "Study of Variable Factors Affecting Couple's Marital Satisfaction : Focused on the Related Variable of Myself and Partner",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31 No. 3, pp. 125-140, 2013.
DOI: <http://dx.doi.org/10.7466/JKHMA.2013.31.3.125>
- [20] Gottman, J. M.(1999). *The marriage clinic: A scientifically based marital therapy*. W. W. Norton & Company, N.Y., London.
- [21] Karney, B. R., & Bradury, T. N.(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 pp. 3-34.
DOI: <http://dx.doi.org/10.1037/0033-2909.118.1.3>
- [22] Y. O. Park, "A Research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Marital Intimacy of The Elderly", Ph.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ristian Studies, Baekseok University, 2012.
- [23] Y. S. Cho, "A Study on the Factors that Hasan Effect on Divorce Intention of Aged Spouses - Centering on the Comparison of Aged Men and Aged Women-", Ph.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ristian Studies, Baekseok University, 2013.
- [24] Hawkins. J. L., 1966, "Association between companionship, host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30. pp. 195-200
- [25] Burr. W. R., 1973, *Theory construction and sociology of the family*, John Wiley: New York.
- [26] McNamara. M. L. L. and Bahr. H. M., 1980, "The dimensionality of marital role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42, No. 1, pp. 45-55.
DOI: <http://dx.doi.org/10.2307/351932>
- [27] Burgess. E. W., and Cottrell. L. S., 1939, "Predicting success or failure in marriage", *Journal Oxford England*, xxiii, 472.
- [28] S. J. Ryu, H. J. Cho, "The Effect of Marital Confliction Marital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Dysfunctional Communication Behavior and Moder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20. No. 1, pp. 213-233, 2015.
DOI: <http://dx.doi.org/10.17315/kjhp.2015.20.1.012>
- [29]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pp. 276-302.
DOI: <http://dx.doi.org/10.1037/0033-2909.125.2.276>
- [30] Clipp, E. C. (Ed.). (2002). *Quality of life*.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Co.
- [31] R. J. Havighurst,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 The Univ. of Chicago Press. 1968.
- [32] H. J. Lee, "A study of variables related to the life satisfaction of baby boomer generation and echo boomer generation", Ph.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2014.
- [33] K. H. Lee, "Policy Suggestions for Raising Satisfaction of Life in Old Age: With a special focus on meeting sexual needs of the aged", Ph.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Myong ji University, 2007.
- [34] J. Y. Kim, "Study of Child Support Burden and Life Satisfaction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y", M. A. dissertation, Hansei University, 2011.
- [35] K. H. Kim, K. S. Ha, "Marital Relations of Aged people Affect on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the Divorce Inten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5, pp. 256-271, 2012.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2.12.05.256>
- [36] N. H. Lim, K. S. Ha, "Effects of Sex-role Attitude and Communication of Elderly Couples on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11, pp. 199-214, 2012.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2.12.11.199>

- [37] Y. A. Choi, "Factors Affecting in the Old Age Marital Satisfaction of Remarried Person", Ph.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Dongguck University, 2002.
- [38] S. W. Kim, H. S. Cho, "Relationships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Finance, Health, Psychology Status of the Middle Aged and Elderly Who are Living Alone",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 5. No. 3, pp. 89-116, 2012.
- [39] N. H. Lim,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the Elderly-Focusing on Sex-Role Attitude and Communication-", Ph. 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Hoseo University, 2013.
- [40] H. M. Kim, "Self-effects and Counterpart-effects of variable factors affecting couple's marital satisfaction", Ph. 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2010.
- [41] K. H. Sung, "Factors Affecting on the Korea Male's Marital Satisfaction in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Ph.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Daegu Haany University, 2012.
- [42] J. W. Lee, "Effects which social support has on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family relation stress of women in multi-cultural homes", Ph.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Daegu Haany University, 2011.

김 형 수(Hyoung-Soo Kim)

[정회원]



- 1995년 5월 : 미국 미주리대학교 사회학 박사
- 1997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부/벤처대학원)

<관심분야>

노인문제, 노인복지, 실버복지경영

나 예 원(Yei-Won Na)

[정회원]



- 2001년 2월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2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노인복지학과(박사과정)

<관심분야>

노인복지, 벤처경영